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총동문회 지표
❖ 참여하는 동문회
❖ 협력하는 동문회
❖ 모교돕는 동문회

설송소식

2020년 7월 제245호 http://cnmhs.net

PENSION & RESORT MIRVILL
자연과 함께하는 휴양형 힐링타운
미르빌 펜션&리조트
예약실 064-792-2918 모교동문 할인
대표 조 성 민(16회) 010-5402-313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846번지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인 : 박대용 편집인 : 이우정 인쇄인 : 한흥교 사무처 : (042)252-5656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모교 동문골프팀 우승후보 군산동고에 역전승 상반기 4강

2020키움증권배SBS고교동창골프 기적적인 9미터 퍼팅 성공 승리 이끌어

충남기계공고총동문회 골프팀이 경북 상주블루원CC에서 7월 9일(목요일) 오후 4시부터 벌어진 2020 키움증권배SBS고교동창골프최강전 상반기대회 8강전에서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힌 군산동고와의 경기에서 연장전 끝에 역전승을 거두고 상반기 4강에 올랐다. 모교팀은 오는 10월 26일 하반기 4강에 오른 팀과 통합 8강전을 갖는다.

모교팀은 올해 전종현 감독(12회)의 차분한 리드하에 지난해부터 맹활약한 주장 허영준(25회)선수와 이문휘(27회) 선수가 경험을 살려 선전하고 올해 새로 합류한 차서백(전 이름 차기천.22회) 선수가 나름대로 몫을 다해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 코로나 여파로 여전히 갤러리들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군산동고와의 상반기 8강전 경기는 1번홀과 2번홀을 승리하여 기선을 제압했으나 3, 4, 5번홀을 잇따라 내주면서 위기에 몰렸다. 다행히 6번홀과 7번홀을 다시 이겨 1업으로 선전했으나 8번홀에서 다시 패하여 동점이 되어 마지막 9번홀로 승부를 넘겼다.

로비와 골프장 입구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마지막 승부를 근접거리에서 지켜보게 되어 다행이었다. 9번홀에서는 상대방이 선전하여 마지막 볼이 군산동고는 2미터, 우리팀은 9미터 거리에서 파 퍼팅을 기다리게 되어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우리 팀이 먼저 파 퍼팅을 하는데 주장 허영준 선수가 9미터 거리에서 정신을 집중하여 배짱 있게 경기를 벌여 공이 기적적으로 홀컵으로 들어갔다. 응원 간 일부 동문과 허영준 선수와 골프모임을 하는 갤러리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허영준 선수가 주장답게 9번홀 마지막 9미터 롱퍼팅을 성공시켜 극적으로 경기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다.

이어 군산동고 선수도 2미터 파 퍼팅을 넣으며 경기는 연장전으로 넘어갔다.

연장전에서는 충기팀이 9번홀에서 기적적인 롱퍼트를 성공시킨 기세를 몰아 일방적인 경기를 펼친 끝에 상반기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상반기에 190여 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충남기계공고를 비롯해 성의고, 창원기계공고, 마산고가 상반기 4강에 진출했다.

한편 이날 경기를 위해 임정규 12회동문회장이 격려차 골프장을 방문해 점심식사를 내며 응원했고, 천명재 설송회 회원(12회)이 골프장을 방문하여 설송회 격려금(200만원)과 김병무 설송회장(12회) 격려금(100만원)을 선수단에 전달했다. 또한 정찬목 모교간사(총동문회 자문위원)와 최동준 로보엔지니어링 대표(총동문회 재정국장)가 현장에서 응원하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경기 직전 충기인의 단합된 힘으로 필승을 기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7월 9일 열린 상반기 8강전 경기는 8월 25일 화요일 밤 10시 30분 SBS골프채널을 통해 녹화방영된다.(8월 26일 정오 12시와 저녁 6시 30분 재방송) 한편 골프대회에서 통합 4강에 들 경우 500만원의 모교 장학금이 지급되고 준우승에는 1천만원, 최종 우승에는 2천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된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제35회 총동문정기총회 서면으로 개최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올해 3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제35회 총동문정기총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를 거듭한 끝에 부득이하게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키로 결정하여, 동문 이사 및 임원, 각 모임의 단체장님들께 서면으로 문서를 발송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동문들께서는 총동문회사무실(전화 252-5656)로 8월 31일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박 대 용

“유사시 운영자금 모금에 전 동문 협조 이끌어 내야”

총동문회 고문단 및 자문위원 간담회 열어 의견 청취

박대용 총동문회장은 어려운 가운데 참석해주시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동문들의 건강과 총동문회 발전을 위해 건배하고 있다.

총동문회 고문단 및 자문위원 간담회가 7월 15일 저녁 태화장에서 열려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박대용 총동문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담회에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시어 감사하다. 그동안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늦은 감이 있다. 건강하시게 뵙게 되어 기쁘다. 향후 동문회 행사에 대하여 고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한흥교 사무총장은 그동안의 동문회 활동에 대해 설명하며 “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정기총회 등 향후 일정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장은 지난 2월 정기이사회에 이어 올해 정기총회가 코로나 사태로 열리지 못해 다른 학교들처럼 서면으로 정기총회를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고문들과 자문위원들은 “세계적인 재난 수준에서 불가피하다”며 “서면 정기총회에 대해 수긍했다. 또한 한해의 가장 중요한 총동문회 행사인 제33회 총동문체육대회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고 개최가 가능하다면 긴급 이사회를 열어 대회를 추진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으로 연기해야 할 것이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 총장은 그동안의 동문동정에 대해 “코로나 사태로 어수선한 가운데 상주에서 열린 SBS고교동창골프대회에서 상반기 4강에 진출하여 오는 10월 26일 통합 8강전을 치루는 만큼 우승할 수 있도록 동문들이 성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고문과 자문위원들은 무엇보다 10월에 체육대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총동문회 운영자금 문제가 대두될 것을 우려했다. 월간으로 발행하는 동문회보 비용만 한해 거의 7천만원이 드는 만큼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유사시 각 회수 동문회와 지역, 직장 동문회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개진했다. 일부 동문은 최악의 경우 동문회보의 휴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흥교 사무총장은 “내년에 모교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리는데 충기역사관의 보완이 시급하다”며 “대전시교육청을 방문하여 시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학교측과 역사관을 꾸며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수 자문위원(전 기무부대장)은 “지난 6월 5일 총동문회가 처음 주최한 오영안 장군, 임재엽 상사 추모식은 의미가 있었다”며 기무사령부에 보관된 오영안 장군 유품이 유실될 수 있어 모교 총동문회에서 인수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무사령부가 폐지되어 기무사역사관에 있던 오영안 장군의 유품이 창고에 방치되었고, 유가족이 인수를 거부하여 일정 기간 지나면 폐기될 입장에 처했다. 이에 충기역사관을 보완하면서 호국관 파트를 생각하는 만큼 인수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오응수, 송주영, 백운길, 안병옥 고문(이상 1회) 이우정 고문(3회), 서한수 자문위원장(3회) 윤대진 고문(5회) 이원승 고문(8회) 신도성 편집위원장(8회) 이장수 자문위원(8회) 임세환 고문(9회) 박대용 총동문회장, 한흥교 사무총장, 김희곤 자문위원(이상 16회) 이다.

박대용 총동문회장은 “지금은 위기의 상황이지만 이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대충기인의 저력을 발휘하여 긍정적인 마인드로 동문들의 적극 협조를 끌어내어 전통을 이어나가자”고 호소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오영안 장군 유품 총동문회에 안치

유족이 인수 기증, 충기역사관 전시 예정

오영안 장군(모교 4회)의 유품(23건 30점)이 7월 27일 서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유족이 반환받아 모교 총동문회사무실로 안치됐다. 오영안 장군은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 도중 적의 총탄에 맞아 순국했다. 이에 모교 동문들은 현 모교 호국영웅동산에 1999년 6월 5일 오영안 장군 동상을 세운바 있다. 오영안 장군 유품은 1998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기무학교에 기증되었다가 지난해 기무사령부를 비롯해 전국의 기무부대가 해체됨에 따라 유품이 유실될 위기에 처해, 최근 뜻있는 군 출신 동문들이 나서 7월 27일 오영안 장군의 아들 오혁제씨가 다시 인수하여 동문회에 기증하게 되었다. 한편 이날 유품을 인수하기 위해 총동문회측에서 이장수 자문위원(전 기무부대장)과 한흥교 사무총장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방문했다. 오 장군의 유품은 충기역사관에 영구 전시될 계획이다.

제32회 총동문체육대회 개최 여부 8월 말 결정

전대미문의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인해 대규모 대중집회가 중단됨에 따라 올해 10월에 개최될 제32회 총동문체육대회도 개최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동문회의 가장 큰 행사인 총동문체육대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 차질은 물론 동문회 운영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을 기하여 8월 31일까지 사태의 추이를 지켜 보고 결정할 것입니다. 다행히 상황이 좋아져 10월 개최가 가능할 경우 총동문이사회를 열어 동문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박 대 용

“동문들 성원 덕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환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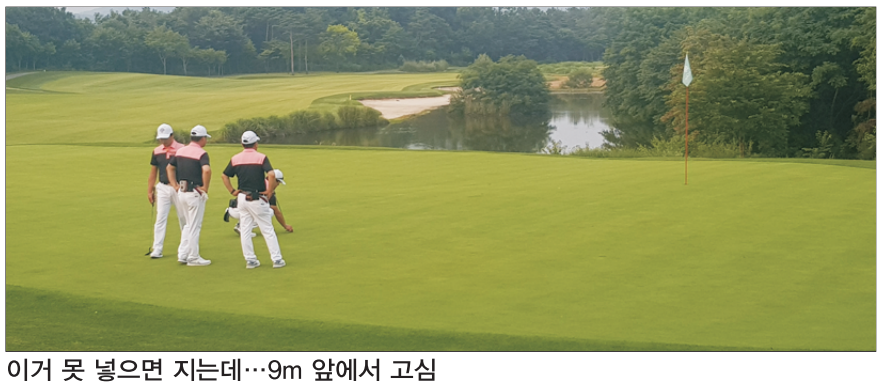
동코스에서 경기 시작

응원객은 들어갈 수 없는 1번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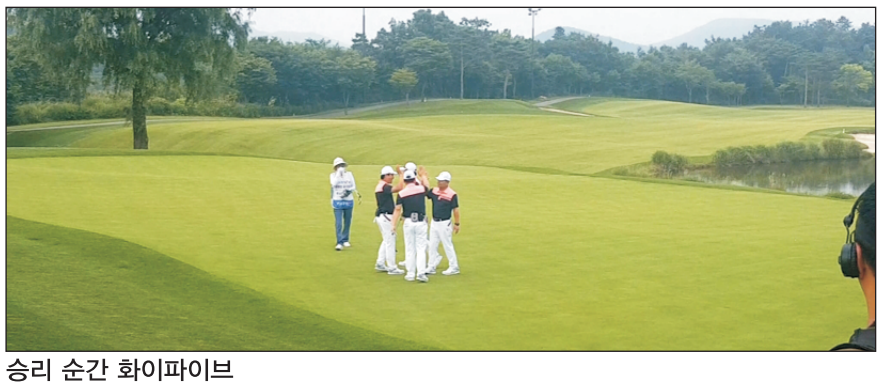
경기 시작 전 방송 촬영

긴 기다림 끝에 9번홀에 선수들 모습 등장

어떻게 칠까 작전 구상


이거 못 넣으면 지는데…9m 앞에서 고심

팽팽한 연장전


승리 순간 화이파이브

승리 후 전종현 감독 인터뷰

응원 온 허영준 선수 골프모임 회원들

승리 직후 기념촬영

저녁식사 건배

"일 년에 한번 2만원 연회비, 충기인 자긍심 전통 유지에 큰 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총동문회 운영 차질, 동문 개개인 협조 절실

전국 고교 동문회 중에 유일하게 월간 동문회보를 발행하는 일은 우리 충기인들의 자랑이다. 지난 1999년 선배들의 노력으로 창간한 동문회보는 어느새 245호(이번 7월호)를 발행하고 올해 12월에 250호를 발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동문회보가 예산상의 이유로 멈출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총동문회 예산은 가을에 열리는 총동문체육대회가 가장 중요하다. 그 때 동참금을 모금하고 체육대회를 치르고 남은 예산으로 1년을 지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올 체육대회가 열리지 못할 수도 있어 비상이 걸린 것이다.

잘 나가는 대구공고나 다른 인문계 고교처럼 큰 인물이 별로 없는 우리 충기인들은 십시일반으로 동문회 예산을 모아 그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동문회보 발행에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동문회를 개미군단으로 부르기도 한다. 동문회보 광고비도 도움이 되지만 특히 1만부 정도 발송되는 동문회보 연회비(1인당 2만원)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적어도 동문 1만 명 중에 3000명 만 연 2만원의 회비를 내면 동문회보 발행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사실상 1년에 연회비를 내는 동문은 700여 명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2019년에는 총동문회에 연회비를 비롯해 광고비 등을 낸 동문은 758명이었다. 그중 1회부터 20회까지 동문이 615명이고 21회 이하 동문은 143명에 불과했다.

올 2020년에는 1월 96명, 2월 250명, 3월 97명, 4월 45명, 5월 31명, 6월 49명(일부 동문 중복) 등 총 568명이 2만원 이상 연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단체에서는 인천동문회, 경기북부동문회, 안산동문회, 기성동문회, 국방과학연구소동문회, 연구단지동문회, 전기과7회동문회, 9회방직과청심회, 14회3학년13반동문회 등이 연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개인으로는 1년에 한번만 내도되는 것을 매월 2만원에서 5만원씩 자동이체하는 동문이 있어 큰 힘이 되고 있다. 고마운 동문은 이우정 (3회), 송수천, 한경환 이황훈(이상 14회) 윤석길, 이계천, 장보환, 이언구(이상 16회) 이재상(33회) 동문이다.

총동문회에서는 회보를 발송하면서 매년 2월호와 7월호에 지로용지를 보내 연회비 납부를 권장하고 있다. 이번 7월호에도 지로용지를 보내 동문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일부 동문 중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운영자금이 모금되지 않을 경우 동문회보 발행 중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원승 총동문회 고문(8회, 전 총동문회장)은 "충기인의 자긍심으로 어렵다고 주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여러 차례 위기 속에서도 버티어 온 만큼 긍정적인 마인드로 십시일반 힘을 보태자"고 독려했다. 송주영 총동문회 고문(1회)은 "항상 동문회가 무엇을 해주었냐고 묻기 전에 동문과 동문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했나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며 "모교와 동문 친구들은 생각할수록 고마운 존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문회보에 지난 6월 10년치 연회비를 납부한 임재엽 상사 부모를 비롯해 수십 명의 학부모들이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충기동문회밴드 등에 자신의 상품을 수시로 선전하면서도 단돈 한 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동문들도 많아 대조적이다.

충남기계공고를 졸업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1년에 한번 내는 연회비 2만원이야말로 충기인의 전통과 역사를 창조하는데 큰 힘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창간호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보
선후배 만남의 장이 되길 바라며…

지령50호

忠南機工同門會報
동문회 활성화 견인차
50

지령51호

忠南機工同門會報
졸업 30주년 행사 대성황
300여 동문 30년만에 어깨동무
백홍기 법률사무소

지령100호

忠南機工同門會報
동문회보 100호를 발행하며…
"첫 오영환 장군" 나라사랑정신을 이어받자
모교 교직원 일동은 동문회보 1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에스앤주얼리

지령150호

설송소식
"백두산 천지 올라 호연지기 기르다"
모교 청암장학생 후배들, 선배들과 우의 나눠
제59차 총동문회 이사회

지령151호

설송소식
"청명한 가을날 선후배 정겨움 나눈다"
제24회 총동문체육대회 10월 20일 토요일 한마당 잔치

창간200호

설송소식
"아! 마음의 고향,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설송, 저 높은 가지의 푸르른 뜻은
"한번 모교는 영원한 모교…형제 우의나눴다"
제28회 총동문체육대회 동문·가족 등 1천여 명 참가 성료

창간200호 특집

"충남기계공고에 당신이 있었기에 행복합니다…"

합본

동문회보 101호~150호
동문회보 51호~100호
동문회보 1호~50호
동문회보 51호~72호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동문회 운영에 연회비 납부가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정성이 소중합니다. 1년에 한번 내시는 연회비 2만원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연회비 납부는 동문회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총동문회사무실 대표전화 ☎252-5656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MICR 지로영수증 (고객용)
지로번호 7656884
금액 20,000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지로통지서 (금융기관용)
MICR 지로번호 7656884 금액 20,000 원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TEL : (042) 282-5658 FAX : (042) 584-5658
평생전화 : 0502-259-5656

‘청암장학재단’ 첫 발, 대전 특성화고 장학생 지원 확대

(주)청암 출자 6월 26일 모교서 발족, 대전 6개교 23명에 장학금 수여

이언구 청암장학재단 이사장이 모교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이언구 이사장이 대전지역 장학생 23명에게 일일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청암장학재단(이사장 이언구, (주)청암 회장, 16회)은 6월 26일 오후 2시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본관 2층 시청각실에서 재단 임원진과 선발 대상학교 교직원 및 장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재단 설립 공표 및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수여식은 한흥교 총동문회사무총장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위촉장 수여식, 장학증서 수여식, 내·외빈 인사 말씀과 장학생 기념촬영 식순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여 인원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구부터 발열체크에 이어 손소독제와 면장갑 등 철저한 준비로 대비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장학금 외에도 기념품을 참가자 모두에게 증정하는 등 세심하게 배려했다.

또한 장학금 수여에 앞서 장학생 멘토 위촉식도 가져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로 35년간 근무하고 현재 (주)청암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선양에 앞장서고 있는 정진국 고문이 위촉됐다.

청암장학재단은 그동안 모교 후배들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대전지역 특성화고교 학생들 전체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언구 이사장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 장학금은 충남기계공고(14명) 외 계룡디지텍고(2명), 동아마이스터고(2명), 대전생활과학고(2명), 대전공업고(2명), 대전전자디자인고(1명) 등 모두 6개 학교 재학생 23명에게 학생 1인당 각 150만 원씩 총 345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이언구 이사장은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발전할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사회생활을 하며 소득의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이 마음 아팠다”며 “그 부분은 반드시 고쳐졌으면 했는데 장학재단 설립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다. 청암장학재단은 앞으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자 더욱 체계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의만 충남기계공고 교장은 “전통 있는 장학회에서 명예로운 선택을 받은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장학생은 단순히 장학금을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까지 함께 받는 것이니 기대에 부응해 학생들의 역량을 마음껏 키우고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특성화고교 23명 장학생들이 장학재단 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주)청암은 올해 청암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전인 2010년부터 장학회를 설립, 대전시교육청에 교육자료를 기증하고 교육기부박람회에 참여해왔다. 또 충남기계공고 학생들에게 백두산 연수 경비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장학 활동을 벌여왔다.

청암장학재단은 사회환원 사업의 일환인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육성을 위한 재단으로, 앞으로 꾸준히 장학생을 선발하고 다방면의 장학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사진=세종포스트 제공〉

“기사를 제보해주세요”

각 회수나 단체동문회 소식과 개인동정을 알려주시면 정성껏 게재하겠습니다.

총동문회사무국 편집실 ☎(042)252-5656

“나이들수록 건강문제가 가장 중요”

대천항에서 방직과 9회 청심회 모임

방직과 9회 청심회(회장 김순규)는 6월 28일 일요일을 맞아 충남 보령의 대천항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던 친구들과 회포를 풀었다.

이날 대천항 소재 대성식당에서 청심회 회원들은 싱싱한 활어회에 곡차를 들며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친목을 도모했다.

김순규 청심회장은 인사말에서 “나이 들어 가장 신경 써야할 것이 건강문제”라며 “친구들이 건강하게 다시 만나 즐거운 여행을 동행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 김순규 청심회 회장 –

“모교 펜싱부 선배들 전통이어 다시 전성기 구가”

제4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중고펜싱 단체전 우승 기염

모교 펜싱부 선수들이 문체부장관기 대회에서 우승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펜싱부 주장이 교장실에서 황의만 교장에게 자랑스런 우승기를 헌납하고 있다.

모교 펜싱부 학생선수들이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경북 김천에서 개최된 제4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전국남녀중고펜싱대회에서 단체전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뤘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국체전은 2021년으로 순연되었고 펜싱대회 또한 경기 개최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020년 2번째 대회 입상이라 그 의의가 크다.

모교 펜싱부는 전국펜싱대회 3대 타이틀 가운데 작년에 2관왕과 작년에 우승을 못한 문체부장관기까지 우승하여 2년 동안 전 대회를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며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영호 선배 등의 전통을 이어 받아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번 대회 직전 대회인 제58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7.13~7.15. 강원도 양구)에서는 작년 우승으로 보유한 우승기를 다시 가져오지 못하고 단체전 3위로 끝나 선수들이 다소 의기소침해진 상황이었다. 현 펜싱부는 3학년 2명(박종우, 이후영) 1학년 4명(신환규, 이승민, 최상윤, 김지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펜싱 단체전은 4명이 들어가는 경기 특성상 2학년의 부재 및 1학년의 고교 대회 첫 출전 등 다양한 상황적,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 데다가 3학년 이후영의 허벅지 통증, 박종우의 발목 통증까지 겹친 어려운 경기를 벌였다.

하지만 심기일전하여 제4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전국남녀중고펜싱대회에서는 황의만 교장선생님이 선수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 주시며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와 다정한 응원이 학생들의 의지를 더 타오르게 했다.

단체전에서 3학년 박종우, 이후영 1학년 김지찬, 신환규 학생선수로 출전하였으며 16강전에서 울산고등학교를 45대 28로 이기고 비교적 순조롭게 출발했다. 우승 후보 라이벌 경남체육고등학교를 8강전에서 만나 45대 40으로 힘겹게 이겼는데, 1학년 김지찬, 신환규 학생의 활약이 돋보인 경기였다.

4강전은 광주체육고등학교를 상대로 45대 41로 무난하게 경기를 이겼다. 불곡고등학교와의 결승전은 엎치락뒤치락하는 경기 중 이후영 학생의 허벅지 통증이 발생하여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도 1학년의 적극적인 응원과 펜싱 지도자 전철구(모교 34회) 선생님의 효율적인 전술이 빛을 발휘하여 45대 42로 우승기를 획득하였다. 이번 대회의 우승은 지난 경기에 단체전 3위에 아쉬움을 더 높은 훈련 강도로 팀원들끼리 구슬땀을 흘려낸 결과라 할 수 있다. 모교 펜싱부 감독 강정훈 교사는 “펜싱부 학생들이 펜싱 경기장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임하며 명문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 걸맞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며, 대전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펜싱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실히 학생들의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찬목 편집위원(12회 · 모교교사) –

1학기 여름방학 일정 8월10일~8월 28일

코로나19로 여름방학동안 모든 행사 중지

모교는 2020학년도 여름방학을 8월 10일부터 들어가 8월31일 개학하며 2학기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1학기 3월 2일 개학을 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4월 2일 3학년을 시작으로 2, 1학년이 순차적으로 개학하여 수업을 시작하였다.

3학년은 학사 일정상 계속 출석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1,2학년은 격주로 등교하며 출석하지 않는 주에는 집에서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면서 2원적인 형태로 무난하게 1학기를 마쳐가고 있고 중간고사 없이 모든 학년이 기말고사 1회로 치러 평가를 마쳤으며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힘든 일정에도 황의만 교장 및 전 교직원이 일심 단결 힘을 합하여 안전과 건강에 최선을 다하여 1건의 사건 사고 없이 1학기를 마치고 있다. 방학 동안 모든 학습이 중지 되지만 전국기능경기에 출전하는 기능부 학생, 운동부 학생들의 하계훈련, 취업을 위한 맞춤반 학생들의 훈련은 무더운 날씨에도 열정 어린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2학기에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모든 학사 일정이 정상화되어 안정적으로 2020학년도 학교운영이 되기를 기원한다.

“몸과 마음 쉬어가는 힐링공간 되길”

설송도서관 현대화 사업 아늑하게 변모

설송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을 2020년 7월 6일부터 실시하여 7월 29일자로 종료했다. 12년 전에 실시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그동안 많은 설송인들이 도서관을 찾아 도서관의 많은 부분이 개보수가 필요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현대화 사업은 약 오천만원의 예산을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했다.

이번 사업으로 더욱 많은 설송인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밝은 분위기로 내부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가구 재배치와 구입을 통해 자료열람 공간, 학습공간, 자료검색 공간 등을 확보했다.

한지영 사서담당 교사는 “많은 설송인들이 도서관을 찾아 책을 통해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고 학업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입 현황

기간 : 2020년 6월 24일 ~ 7월 28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연회비 및 발전기금

자	1	정종대	50,000	기	12	정찬목	20,000	전	16	김희곤	20,000	기	20	구용환	20,000
자	2	오상진	20,000	기	13	김광시	40,000	기	16	박대용	650,000	기	20	진승현	20,000
광	3	서한수	50,000	전	13	김성태	20,000	기	16	배인봉	20,000	기	22	조영백	20,000
광	3	오선웅	50,000	기	14	송수헌	50,000	기	16	신영태	20,000	배	22	차서백	100,000
전	3	이우정	20,000	화	14	오태길	20,000	기	16	윤석길	40,000	기	25	송은택	100,000
방	4	송석범	20,000	기	14	이황훈	50,000	기	16	이계천	20,000	기	25	유경상	20,000
자	7	이재진	20,000	화	14	정헌규	20,000	기	16	이언구	50,000	기	25	허영준	50,000
전	8	김기연	20,000	화	14	차영대	20,000	기	16	이재흥	20,000	전	32	한동석	20,000
기	8	신도성	50,000	기	14	한경환	20,000	기	16	이창섭	20,000	기	33	이재상	20,000
전	8	임헌표	50,000	기	15	노영재	20,000	전	16	장보환	20,000	전	34	전상민	20,000
전	8	조성돈	20,000	기	15	원상길	20,000	기	18	김범래	320,000	기	35	김정규	20,000
기	12	박준규	20,000	기	16	김석래	20,000	기	18	이은성	20,000				

회보 광고비

전	18	마수용	200,000
기	18	박종용	50,000
금	18	유병각	50,000
기	18	장영옥	50,000
기	18	장영우	200,000
기	21	진춘식	100,000
업체		크라운뷔페	70,000

카메라 초점

"너무나도 한심한 모교 기숙사 쓰레기 투척"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해도 여전히 버려 동문 선배들 "개탄스럽다"

모교 기숙사 7층 건물은 지난 겨울방학에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 깨끗하게 리모델링한 건물이다.

그런데 기숙사 1층 식당 위 지붕에 라면 먹다 남은 음식을 비롯해 타올, 담배꽁초, 캔, 마스크 등이 마구 버려져 있어 학교측이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기숙사 1층 위는 총동문회사무실이 있어 창문만 열면 보이기 때문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지난 달 어느 날에는 오전 11시경 총동문회 사무실에 동문 방문객들이 찾아왔다가 음료수 캔 몇 개가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여, 동문회에서 즉시 기숙사사무실로 담당교사를 찾아 이 같은 상황을 전달했다. 그때 기숙사에는 7명의 기숙사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양아치나 할 일인 쓰레기 투척이 모교 선배들 앞에서 일부 후배들이 저지른 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학교측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기숙사생들에게 수시 교육을 시켰지만, 이를 비웃듯이 여전히 쓰레기를 투척하여 개탄스럽다.

재학시절 모교 기숙사에서 3년간 학교를 다녔던 이 모 동문(30회)은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1천 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다보니 기강이 매우 엄했다"며 "오죽하면 해병대 군기보다 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고 말했다.

아무리 요즘 교육이 오냐오냐 하는 자유방임의 시대라고 해도 기본적인 사회규범 준수와 양심 지키는 일은 교육의 핵심이다. 극히 일부라고 해도 기숙사에서의 쓰레기 방치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기숙사생이 적어지더라도 현행 학교규칙에 따라 담배 피는 학생을 기숙사에서 퇴사시키는 것처럼, 쓰레기 투척행위도 기숙사에서 퇴사 시켜야 한다. 온정주의로 작은 녹을 방치하면 전체가 녹쓸어 버릴 수 있다.

학교측의 강력한 지도가 필요하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이게 학교냐!"

먹다 남은 라면과 타올

담배와 컵라면

공포의 마스크

캔과 담배꽁초

감시카메라 설치

감시카메라 무색

쓰레기판

종합정비업
으뜸자동차공업사
자동차검사! 환경심사!
대표 장 영 우 (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2번지 (면허시험장)
TEL : (042) 282-1500 FAX : (042) 282-1501 , E-mail : jyu9839@hanmail.net

이름 조가네 갑 하는 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현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면세물류/ 근로자파견

필 엔 텍
FIL & TECH
대표 진 춘 식 (21회)
010-8823-8548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9번길 36
TEL. (042)626-8548 팩스. 626-8549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박 종 용 (18회)
대전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UMBRO
스포츠의류 umbro
대전 롯데백화점 7층 매장
대표: 김재용(010-4623-5073)
〈김석래(16회 동문) 아들〉

페인트도소매 조색시스템 (3분조색OK) 도 장 공 사
분체, 액체 열처리도장
제비표페인트대연상사
제 일 테 크
유 병 각 (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18동 135,136호
TEL:(042) 670-7877, 7233
FAX:(042) 670-7876

KIA 기아자동차 남선대리점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동문이 되겠습니다."
카마스터 김 희 곤(16회) 동문차량 전담

TEL : (042) 486-0042
H.P : 010-3300-5838
FAX : (042) 525-4878

누리상조
★ 매월 납입금 없는 후불방식 입니다.
◈기존 상조회사보다 저렴합니다.
대표: 나 익 성 (기 13회)
010-4433-0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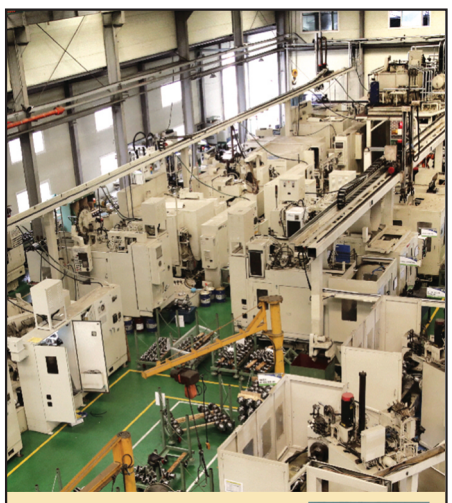
탐라돌구이
윤 여 갑 (10회)

H.P : 010-5454-1262
TEL : 042-823-8888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07-4
♣대형 주차장 완비♣

CROWN 크라운출장뷔페
대표 이희범 (동문협찬업체)
결혼식/각종연회/칵테일파티/기업체행사/운동회 및 각종모임/바베큐/생맥주 파티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528번지
전화 : (042) 585-5500 휴대폰 : 010-5462-9919

KOHANDS (주)코핸즈 대리점
GSA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에어스타 (주)에어스타 대리점
콤프레샤 주문제작 및 수리
에어 주변기기 일체
한 국 기 계
대표 장 영 옥 (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콤프레샤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 우. 306-754
Tel. 042 · 670 · 8962, 042 · 623 · 8962 / Fax. 042 · 670 · 8963
E-mail : hkmcomp@hanmail.net
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53호, 154호

DAWON (주)다원엘리베이터
DAWON ELEVATOR CO., LTD.
기술이사 안 치 홍 (19회)
TEL. (043) 266-1215 FAX. (043) 266-1217
Mobile. 010-6404-0120 Http://엘리베이터제작,한국
본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 24번길 12-11 하나빌딩
사회적책임 경영품질부문 대상 조달청등록기업, ISO인증기업
승객용, 화물용, 리프트 제작설치, 리-모델링(교체공사)전문기업


(주)세진크랭크
30년간 오직 Crankshaft가공에 매진해온 국내 최고의 Crankshaft가공 전문기업

대표이사 전종현(12회)

"부모님같이 정성 다해 모시겠습니다"
가화노인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83번15(1층)
☎ 042)638-8828
핸드폰 010-8805-8051
원장: 안도경(이상돈 16회 동문 부인)
중풍, 치매, 뇌졸중 등 거동불편 어르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구강관리

미르마르커피
대표 조 성 민 (16회)
Hp 010.5402.3132
강릉 안목커피거리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14번길 22
T e l : 033-653-3130
FAX : 033-653-3132
E-mail : mirmarcoffee@naver.com

금산 왕대양꼬치 GEUMSAN WANG DAE LAMB

대표
권 경 중 (26회)
[32736]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16
Mobile : 010-3588-4135
예약문의 : 041) 751-2299

세 무 법 인 YEE JEONG 이정
稅務法人 以 楨 유성지점
대표세무사
마 수 용 (18회) 010-4506-5089
[국세청, 북대전 · 대전세무서, 조세심판원 근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75 비에스타워 506호 (충남대 서문앞)
Tel 042-719-8898 Fax 042-719-8810
신고대리 기장대리 불복청구 세무조사 양도 상속 증여

*동문회 운영에 협찬 광고가 큰 힘이 됩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동문 업체의 광고를 게재합니다. 매월 1만부 발행하는 동문회보는 해외를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 발송되어 광고 효과가 좋습니다.
♠총동문회사무실 대표전화 ☎252-5656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더 많은 제품을 보고 싶으시면 www.yjds.kr에서 구경하세요.

디자인부터 제작, 납품을 한번에~
예진커뮤니케이션은
최첨단 설비시설과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자인, 제작, 납품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컬러박스 제작 전문업체 입니다.
From designing to production
(주)예진커뮤니케이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955번길 34-63
제작문의 031 957-2829
팀장 우 상 철(26회) 010-4727-2060